

“자기 영역 지키기 몰두하는 ‘도마DOMA’ 부터 부숴야 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핵폐기장 문제

글 | 조성경_《핵폐기장 뒤집어보기》 저자

핵폐기장 VS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누가 이길까? 지루한 싸움이다. 싸움 끝에 남는 건 승자와 패자가 아니라 피해자뿐. 몇 차례 부지가 선정되기도 했지만, 매번 백지화됐다. 정부에 대한 불신은 점점 쌓여 무너뜨리기 어려운 벽을 세웠고, 사회적 갈등도 더욱 깊어졌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핵폐기장 논의의 핵심은 ‘어디에’가 아니라 ‘덜 위험하고, 더 안전하게’에 있다. 이제까지 해온 방식처럼 대충 손질해 얼렁뚱땅 넘기려는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 논의의 틀 자체를 바꿔 입체적이고 다차원적 기반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핵폐기장의 본질보다 어떻게 포장되었느냐를 놓고 벌이는 각 이해집단의 신경전—,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대목이다. 그래서 알고 싶지도 않고, 이해하기도 어려울 듯한 핵폐기물과 핵폐기장, 그리고 핵폐기장 정책에 관해 기술공학적 내용은 물론, 사회문화적 해석까지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핵폐기장 이슈가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일임을, 바로 나 자신의 일임을 논리적으로 확인하고자 함이다.

‘해결되지 못한 가장 오래된 국책사업’, 핵폐기장에 붙는 꼬리표다. 20년 만에 동의한 유일한 내용은 정책 추진 전제로서의 ‘수용성’이다. 수용성 확보를 위한 첫 발은 설명도 홍보도 당근도 아니다. 사람들이 핵폐기장을 ‘위험’하다고 느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수용성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지식과 신뢰, 그리고 위험인식을 꼽는다. 이를 근거로 망원렌즈를 통해 핵폐기장 주변사 20년의 흐름을 읽어내고, 매 사안별로 클로즈업 시켜 그동안 보지 못했거나 보려하지 않았던 이해집단간의 복잡한 구조를 그려내고 있다. 과연 사람들은 핵폐기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핵폐기장 정책에 대해선 얼마나 신뢰할까? 핵폐기장에 대해 얼마나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을까? 핵폐기장 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실증분석을 통해 정부, 지역주민, 시민, 원자력전문가, 언론, 시민단체 각각의 생각을 정리하고, 각 이해집단간의 입장차가 얼마나 명확한지 보여주고 있다.

핵폐기장 문제의 뿌리는 ‘위험’이다. 이 위험은 과학기술의 울타리를 넘어 이를 둘러싼 사회·정치·문화적 배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다. 여기엔 스티그마Stigma, 즉 사람이나 장소, 기술, 지역 생산물 등에 대한 일종의 왜곡된 흠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주관적이고 가치판단적인 위험은 그래서 실질적인 피해를 동반한다. 기본적으로 부담을 갖게 하는 핵폐기장. 그 사회적 부담의 대부분은 해당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님비는 지역이기주의로서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방어기제로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핵폐기장을 늘 속으로 빠뜨린 장본인은 님비NIMBY가 아니라 도마DOMA: Defend Only My Area인 것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반핵단체는 반핵단체대로,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또 누구는 누구대로 포장된 명분을 내세워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틀리다고 주장하는 도마. 자기 영역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도마를 부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같아질 수 있는 척하지 말고, 다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파이를 합의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더 이상 핵폐기장을 지역에 세우면 무슨무슨 부록을 딸려 주겠다는 식의 방법론은 안 된다. 지역주민에게 부담보다 편익이 큰 분배구조를 제시하고, 선택하게 해야 한다. 지역주민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참여는 과정에 대한 참여가 아니라 결정권을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설이 아닌 '도시' 건설의 개념이 새로운 분배구조를 만들 수 있다. 지역주민끼리의 자급자족이 아니라 열린 도시를 세움으로써 사람들의 오고감을 통해 창출되는 이익이 필요하다. 이른바 쿨빙Cool-Being 도시다. 그곳에 가면, 또 그곳에 살면 말 그대로 자기 위치에서 쿨하게, 자기답게 살 수 있다. 물론, 철저한 위험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최우선 전제조건이다.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만약을 대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은 힘 있는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국제공동핵폐기장'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를 향해 현재 힘을 갖고 있는 주체는 정부다. 정부가 반핵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는 물론 전문가, 오피니언리더, 언론, 지역주민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분명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치열한 고민과 토론을 거쳐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래야만 희망이 있다.

《핵폐기장 뒤집어보기》는 별로 눈도 손도 가지 않는 책이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에 이 책과 만나 누군가 전혀 관심두지 않았던 핵폐기장 문제에 관심의 씨앗을 틔우게 된다면, "이제 봤더니 핵폐기장이 그리 이해하기 어렵기만 한 내용은 아니구나" 하게 된다면 하는 바람이다. 해법을 찾지 못하고 곤혹스러워 하는 정부에게 스스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싶다. 명분과 당위를 앞세워 현실을 덮고 자꾸 고집스러워지려는 반핵단체에게 자존심 상하지 않으면서 솔직한 생각을 털어놓을 수 있는 명석을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한다. 전문가들로 하여금 "꽤 씩씩하긴 해도 틀린 말은 아니네" 하며 한 번쯤 생각하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핵폐기장 이슈를 효과적 도구로 사용하던 정치가가 있었다면 잠깐이나마 부끄럽단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시선 끄는 헤드라인보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언론의 당위성을 자극할 수 있다면 좋겠다. 적을 만들지 않을까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오피니언리더들로 하여금 '뭔가 한마디는 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의욕을 갖게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욕심일까. 무엇보다 지역주민이 누구에 의한 반대, 누구 영향을 받은 찬성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건강하게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 웃을 수 있다면 하는 게 간절한 소망이다. 이런 마음이 이 책 구석구석에 담겨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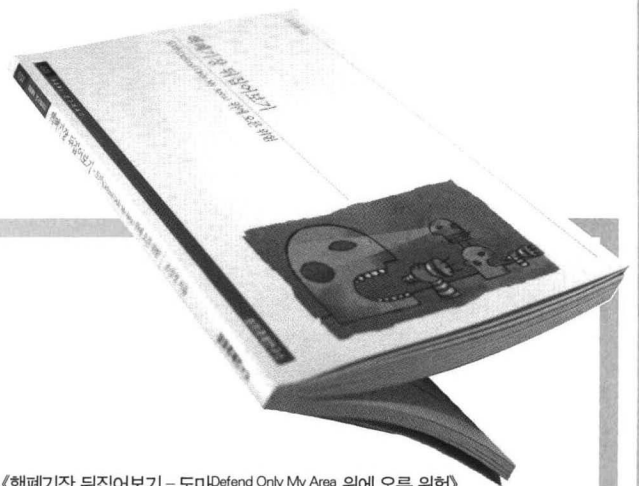
나는 이렇게 읽었다 관련 전문가가 읽은 《핵폐기장 뒤집어보기》

정윤형 책임연구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술연구부)

일반인에게 핵폐기장은 뭔가 비밀로 둘러싸여 자세히 알면 다칠 것 같은 영역처럼 여겨진다. 이 책은 터부를 차고 나와 핵폐기장 정책의 표류 원인이 님비(NIMBY)가 아니며, 양치기 소년이 된 안타까운 처지인 정부가 그래도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결론 내린다. 전기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핵폐기장 문제를 진정된 '우리 일'로 받아들여 문제의 해결에 나서도록 저자는 권하고 있다.

김진태(산자부 대외협력과장)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부분적인 지식만을 갖고도 방폐장에 대해 전문가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과 달리 방폐장의 전반에 대해 해박한 이해를 갖고 있는 점에 놀랐다. 직접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으로 잃어버리기 쉬운 객관적인 제3자의 의견을 알 수 있어 너무 좋았으며, 욕심을 낸다면 책을 쓰기 전에 직접 정책을 추진하는 실무담당자와의 의견교환이 있었다더라면 보다 완벽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핵폐기장 뒤집어보기 - 도미[Defend Only My Area] 위에 오른 위험》

(SERI연구에세이021) 조성경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 | 140쪽 | 값 5,000원